

以上 禪林院址의 遺物調査結果를 略報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一帶의 發掘再調査가 있어서 各遺物의 詳細한 復原圖 및 遺址의 調査報告書로서 新羅寺院址의 研究를 整理할 機會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本調査에 많은 指導를 주신 黃壽永教授에 感謝의 말씀 드리며 現場踏查에 많이 協助해 준 同人 申榮勳氏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① 襄陽邑內에서 二八km 되는 山間地域으로 이곳은 定期車便이 없는 徒步行路이다. 「주력」이나 「짚」車를 特別히 利用하면 車道는 運行可能하게 整地되어 있다.

② 李弘植…①貞元廿年在銘新羅梵鐘(國學論叢——白樂溥博士還甲記 念論文集)

③ 薄命의 新羅梵鐘(李弘植著 讀史餘滴)

④ 秦弘燮: 禪林院址三層石塔內發見小塔(美術資料第九號)

⑤ 日帝時 金石文을 蒐集한 때 (大正三年——一九一四年 A, D) 襄陽郡廳에 移搬된 此碑片이 發見되어 그 후 現位置에 移管되었는데 一四〇餘字의 碑文은 「朝鮮金石攷」「朝鮮金石總覽」에 紹介되었

다. ⑥ 二行의 陽刻字下部에는 三區의 小眼象이 있고 그 外周緣에는 流麗한 雲紋으로 彫飾하였다.

⑦ 「朝鮮金石攷」에 記錄이 있으나 그것도 大東金石書를 引用하였다. 한편 弘覺禪師에 對하여는 「朝鮮禪敎史」에서도 볼 수 있다.

仁川市景西洞 綠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

崔 淳 雨

一

仁川市の 西郊 景西洞 山一四六番地 一帶에 古陶窯址가 있다는 事實은 一九四九年頃 當時의 仁川市立博物館長 李慶成氏에 依하여 發見되어 그所在가 仁川市勢一覽과 仁川의 古蹟(一九六〇——仁川市立博物館)에

도 收錄되어 있다. 仁川市立博物館은 一九六五年度의 調査事業으로서 山一四六番地의 一號보리밭안에 있는 同窯址의 一部를 發掘調査하기로 되었다. 이 發掘은 一九六五年 十二月 十七일부터 二十三日까지, 一九六六年 三月 二十八일부터 四月 四日 까지, 四月 十三일부터 四月 十八日 까지 五月 四일부터 五月 七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筆者의 指揮로 鄭良謨(國博)氏가 主로 現場을 擔當했으며 金宇一(仁川市立博物館長, 俞門龍(國博)氏가 이에 參加했다. 이 發掘에 對한 報告書는 앞으로 仁川市立博物館을 통해서 出刊될 豫定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그 概要를 傳해 두고자 한다.

二

이번에 筆者가 綠靑磁라고 假稱한 이 窯址產의 磁器는 비교적 精選된 靑磁系의 質은 胎土위의 粗質의 綠靑色施釉를 한 것으로서 日本에서는 古來로 이러한 部類를 「이라보」 또는 「이라호」(伊羅保)라고 俗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의 前期와 後期 또는 李朝初에도 있었던 종류로서 이제까지 市中에 나도는 이 종류의 古墳出土品에 對한 學術的인 正確한 知見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러한 部類의 靑磁中에는 그 器皿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本格的인 高麗靑磁의 成立에 先行하는 一種의 先驅的 靑磁로 인정되는 類型이 있음으로 해서 關心이 깊었고 따라서 이번 窯址調査에서는 이 窯址出土破片에 對한 樣式的인 考察을 통해서 얻어질 이러한 粗質 綠靑磁釉系의 編年과 樣式 및 技術系譜에 對한 學術的知見 그리고 韓國古陶窯의 構造樣式과 그 規模를 밝히는 일이 期待되었다.

三

이 景西洞 山一四六番地 一帶는 西向한 앞은 丘陵地帶로서 鹽田과 바다가 연이어져 있는 곳이다. 이번 發掘한 山一四六의 一番地는 이 丘陵을 깎아서 만든 보리밭임으로 丘陵과 밭사이에는 작은 斷層이 생겼고 이번 檢出한 窯床과 陶磁破片堆積層은 약간 傾斜진 이 보리밭을 가로질러 丘陵斷層위에까지 걸쳐져 있어서 이 斷層때문에 窯床의 中間이 약간 끊겨져 있었다.



(二) 窯의 構造와 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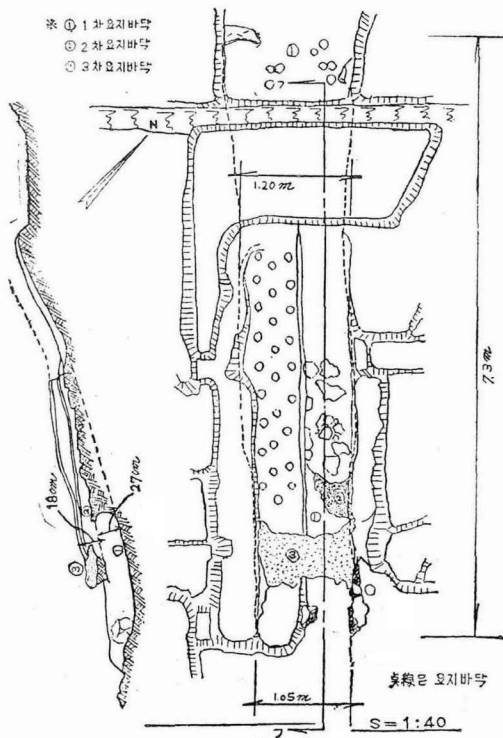
丘陵을 타고 西南向해서 쌓아진 이 窯址는 원래 三次에 걸쳐서 같은 規模의 窯床 위에 改築을 했던 것으로서 第一表面에 나타난 窯床은 길이 七三〇 cm 폭은

○五 cm 窯室部位에서 一一〇 cm 의 드물게 보는 小規模의 것이었다. 最初의 築造로 생각되는 窯床(圖面①參照)은 生土 위에 砂床을 깔았던 흔적으로서 第二窯床과의 差는 約二七 cm 内外 斷層위까지 延長된 窯床의 尾部表面의 現狀은 이 第一窯床에 該當된다. 이 尾部의 現在表面의 現狀은 그대로 生土가 불에 탄 바닥을 示現한 것이며 그 흙의 깊이에 따라 年輪처럼 흙색의 變化가 그 斷面に 잘 나타나 있다. 第二의 窯床은 第一窯床 위에 泥土를 다지고 그 위에 넓고 얇은 板石(圖②參照)들을 깔고 그 위에 五—七 cm 程度の 砂床을 깔았던 것으로서 가장 原狀에 가깝게 남아 있는 이 第二窯床은 그 保存을 위하여 縱으로 半分은 砂床을 벗겨서 板石을 露出시켰고 半分은 그대로 砂床대로 남겨 놓았다. 第三窯床(圖③參照)은 窯口에 가까운 部分, 即 불에 몹시 타서 陶質化한 窯床이 마치 다리(橋) 모양으로 第二砂床에서 一一〇 cm 内外 높이의 窯幅에 가로질러서 남아 있다. 兩側 窯壁은 이 三次의 窯床築造를 통해서 거의 異動이 없는 채 現在 높이 第二砂床에서 五〇 cm 内外가 남아 있다. 窯幅 一一〇 cm 로 보면 窯壁의 높이도 원래 낮았던 듯 싶고 또 거의 窯床의 中心部分이 그대로 남겨진 第二窯床의 構造로 보면 이 窯는 傾斜二度가량의 單室 窯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注意되는 것은 緩慢하게 傾斜진 이 窯床의 表面에 配列했던 흙으로 빚어 만든 圓形의 俗稱 개떡(굽기전에 그릇

을 하나하나 올려 놓아서 그릇의 굽이 窯床에 直接 놓이지 않도록 마련한 굽바침)의 特殊한 樣式이다. 마치 말뚝모양으로 앞쪽은 두껍고 뒷쪽은 얇게 빚어서 傾斜진 窯床 위에 두꺼운 쪽을 아래편으로 놓으면 이 굽발침 上面에 그것이 平衡으로 놓이도록 된 것이다. 즉 窯床自體에 水平의 段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굽발침으로 그것을 調節하는 方法이다. 이러한 窯床과 굽발침의 樣式은 이번에 처음 發見된 것이다. 規模는 다르지만 이러한 樣式的 窯床과 굽발침을 나타낸 古窯址가 日本에서도 發掘調査되었다고 傳聞(東京大學三上次男教授談)되는데 이것은 窯技의 日本流轉經路를 밝히는 데 있어서 兩者 相互關係에 要緊한 知見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第二窯床의 砂床 아래 板石을 깔았던 것은 아마도 第一窯床의 地盤이 弱했던 까닭이라고도 생각되나 앞으로 充分히 檢討되어야 할 問題이다.

(二) 破片堆積層과 그 遺物

陶磁片堆積層은 主로 窯床에서 가까운 왼쪽 凹地帶에 쌓여 있었다. 이 堆積層은 窯床과 거의 같은 깊이에 쌓여 있었으며 純全히 同質의 綠青



粗質靑磁釉가 의뢰된 同一系의 磁片들이었는데 隣近에서 轉入된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粉靑磁器流의 施釉靑磁片도 間或 섞이여 나온다. 이 丘陵위로 窯址出土로 보여지는 同質의 粉靑磁片들과 섞이여 出土되고 있는 것을 보면 同年代에 粉靑에 가까운 靑磁가 이 丘陵에서 生産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問題는 이 綠靑磁窯의 年代推定에 一助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綠靑磁窯의 破片群을 보면 廣口長頸瓶類가 적지 않고 접시 대접 種類가 많은데 대접 種類에서는 얇고도 精緻로운 胎土를 쓴 佳作이 적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특히 큰 그릇으로는 보기 드물게 얇은 胎土때문에 그릇무게가 매우 가벼운 것이 이 窯産 그릇들의 지닌 一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접에 있어서 그 口緣部가 안쪽으로 말려들어서 도톰한 테를 이루고 있는 樣式은 一九六五年 봄 「한국일보사」主催 新羅 五岳調査團의 事業으로 筆者가 慶州 暗谷에서 踏査한 粉靑系窯址에서 採集한 대접의 경우와 꼭 같았다. 이것은 이 綠靑磁窯址周邊에 混在해있는 粉靑系破片의 出土와 함께 이 窯가 아마도 十四世紀 後半 또는 十五世紀頃에 活動하던 窯였다는 것을 推定케 해주었다.

四

以上 짧은 記述로서는 이 綠靑磁窯의 片貌밖에는 밝힐 수가 없으므로 詳細는 破片과 記錄의 整理를 기다려서 앞으로 있을 報告書刊行에 미루기로 하겠지만 이번 發掘에 있어서 檢出된 窯의 構造와 特殊한 樣式等에 깊은 理解를 가진 尹甲老 仁川市長은 特別豫算으로서 이미 이 遺構를 길이 保存하기 爲한 錢집을 세워서 雨露를 막게 해준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의 하나이다. 이 發掘에 보여준 仁川市長 및 仁川博物館長의 非常했던 熱意를 여기에 記錄해 둔다.

考古美術 卅一之

◎ 文化財委 第一分委懇談會

五月二十四日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形式의 모임은 文化財委員의 任期滿了에 따르는 空白期로 不得已 취해진 것이다. 出席은 第一分委의 金 庠基 金斗鍾 金載元 金元龍 金允基 黃壽永委員으로서 討議件은 다음과 같다.

- 一、南山所在 土地測量完了紀念碑石撤去……建設部에 廻付할 것임.
 - 一、大韓貿易振興公社主管文化財海外展示……不可할.
 - 一、石窟庵本尊白毫新設申請……再議키로함.
 - 一、丁扶國立博物館韓國室設置에 따르는 家具等 出品……可할
- 이 外에 景福宮牆一部撤去問題에 대하여 論議가 있었다.

◎ 文化財委員會 第二代總會

六月八日 午後二時부터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되었다. 權文教部長官의 人事에 있어서 臨時議長 鄭文基司會로 進行되어 正副委員長(金庠基 金載元 鄭文基) 分科委員長(李弘植) (一) 任哲宰 (二) 朴萬奎 (三) 의 選舉가 있었으며 各委員의 當局에 대한 要望事項에 대한 發言이 있었다.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載元 李弘植 金允基 金元龍 黃壽永 (一分科) 任哲宰 任東權 成慶麟 朴憲鳳 芮庸海 金天興 (二分科) 鄭文基 李敏載 朴萬奎 孫致武 崔基哲 (三分科)

◎ 第九回全國歷史學大會

六月三日 四日 兩日間 東國大學校에서 開催되었는데 考古美術部의 發表는 四日 小劇場에서 있었는데 滿員의 盛況을 이루었다. 發表內容은 다음과 같다.

新發見의 江原道溟州郡領鎮里와

方鎮里 柳 任 孝 宰

文士器遺蹟

黃 壽 永

釜山王宮里五層石塔調査

鄭 永 鎬

襄陽禪林院址에 對하여

崔 淳 雨

仁川景西洞綠靑磁窯址에 對하여

崔 淳 雨

◎ 在日韓國文化財返還

「韓日協定」에 依하여 返還키로 된 文化財의 引受를 爲하여 渡日한 李弘植 崔 淳兩氏는 節次의 進行과 遺物의 點檢을 마치고 五月二十七日 二臺의 航空 機便으로 返還되었는데 崔淳雨氏가 同行 歸國하였다. 同文化財는 整理와 陳列이 끝나는 대로 七月初旬頃 國立博物館에서 一般에게 公開되리라고 한다.

◎ 韓國大學博物館協會年例總會

同協會는 聯合展示會의 最終日인 六月十一日 梨大博物館에서 年例總會를 갖